<유목미학 2 - 황홀한 만남>

<제1강> 중앙아시아 예술과 유목미학
<제2강> 종교예술의 원형 - 조로아스터 예술
<제3강> 중앙아시아속의 헬레니즘 - 박트리아 왕국의 그리스 도시 아이하눔
<제4강> 헬레니즘과 불교예술 1 - 불교의 탄생과 무불상 시대의 불교문화
<제5강> 헬레니즘과 불교예술 2 - 쿠샨족과 간다라 불상
<제6강> 두 개의 정토 - 대승불교의 불신관과 그 조형의 세계
<제7강> 신들의 여행 - 중앙아시아 속의 그리스 신들

<제1강> 중앙아시아 예술과 유목 미학

"유목미학 1"이 <천의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들뢰즈/가타리의 철학세계를 바탕으로 서양 미술사 전반에서 유목미학적 특성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강좌 "유목미학 2"는 특히 접속(connexion)과 배치(assemblage)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예술들의 만남을 펼쳐보이게 된다. 수많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천의 고원>에는 "차이생성(differenti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 생성철학은 이데아나 신처럼 삶의 외부에서 존재의 근원을 찾는 서양의 전통적 사유체계와는 달리 삶 자체를 창조적 역능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차이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의 원리는 낱낱의 예술적 요소(기계)들이 접속과 배치를 통해 영토화와 탈영토화 그리고 재 영토화를 이루어 가는 모든 예술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특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 사상, 종교 등이 혼재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예술을 통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개개의 예술적 요소들이 어떤 접속을 통해 황홀한 영토화를 이루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명확치 않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폭넓은 지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중앙아시아는 중국 령 신강성자치구 일대의 동 투르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소련 령 다섯 공화국의 서 투르키스탄, 그 밖에도 북쪽으로 몽골고원 일부와 남쪽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티베트 일부를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 서 투르키스탄이라 할 수 있다. 투르키스탄의 어의는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일대의 대다수 주민들이 투르크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예로부터 동서 문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 문화와 예술 등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본 강좌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던 기원전 323년에서부터 불상이 탄생한 기원 후 1~2세기 무렵까지 (7강, 두 개의 정토 제외) 헬레니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박트리아(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일대)와 간다라(지금의 파키스탄 일대) 지방을 중심으로 동 서 투르키스탄 일대의 예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고대와 중세의 동방 예술과 중세 유럽의 예술은 종교예술이 그 중심을 형성해왔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란의 조로아스터교, 인도아대륙의 불교, 유럽의 기독교 등에서 공통적으로 그리스 예술의 영향을 받은 갖가지 조형예술이 탄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탄생한 헬레니즘 예술과 이란문화, 그리고 불교의 만남을 통해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조형예술이 탄생했다. 그리스의 사상이나 언어, 생활양식 등을 따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레니즘은 고전기 이후에 나타나는 좀더 국제화 된 그리스 문화를 특정 짓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그리스 예술은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이 건설한 수많은 동방의 그리스 식민지 제국들의 조형 언어로 발전해갔으며 그리스 고전기 예술 양식과 주제는 오리엔트(동방) 왕국들의 전통과 융합이 이루어졌다. 건축에서는 도리아, 이오니아 양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원주를 가진 코린트 양식이 생겨났으며 이 화려한 잎사귀 무늬로 장식된 코린트 양식의 주두는 동방의 그리스 왕국에 세워진 거대한 규모의 호화로운 건축물들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헬레니즘의 영향은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불교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조각상이 불상의 탄생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양식상의 특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서방의 헬레니즘과 동방의 불교가 중심축을 이루고 두 문화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되는 다양한 접속과 배치의 예술 형태를 이야기하게 된다.

<제2강> 종교예술의 원형 - 조로아스터 예술

1. 조로아스터교 이전 원 인도 이란 세계의 신앙

인도. 이란인(아리아인)이 세계사에서 명확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이다. 원 인도. 유럽어족의 동서 이동에 있어서 동쪽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일단 중앙아시아를 본거지로 한 후 더 아래로 남하했다. 그 중 인도로 진입한 사람들이 반드시 폭력적으로 지배권을 넓혔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히 큰 집단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의 오랜 찬가집 '리그베다'에 반영되어 있다. 한 편 이란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평화적인 가운데 이란고원 전체에 정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무렵 이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그들의 주거유적은 남아있어도 언어와 신앙, 문화의 특징 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와 이란으로 향했던 아리안족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느 쪽도 스스로를 '아리아(아리아란 '고귀한'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이다)'라 칭하고 다른 인종들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사회가 제사(祭司), 전사(戰士), 생산자(生産者)라고 하는 세 부류의 계급으로 나뉘어져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세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바쳐지는 제의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믿었으며 사제계급이 존숭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 편, 전사는 외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도 하고 스스로 전투를 통해 약탈품을 획득하기도 하였을 것이나 본질적으로 수렵인이었던 청동기인들이 대규모의 살육과 파괴를 일삼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생산자 계급은 목축에 종사하는 등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맡고 있었다. 부의 기준을 가축의 수와 질에, 풍요의 기준을 목초지의 넓이에 두었던 그들의 바램은 보다 좋은 목초지를 얻어 양과 소 등의 가축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계가 여러 신의 개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특정 신의 힘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신에게 찬가와 희생을 바쳐 그 신의 힘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세계의 기초가 되어있는 천, 지, 수, 풍과 태양 등에는 일상적으로 기도가 바쳐졌다. 그밖에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우정, 맹세, 계약 등도 신격화되었는데, 그것들 역시 초자연적인 힘으로 밖에 수호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도의 옛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리아 출신임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차츰 현지의 문화에 동화되어 도시 생활자가 되었으며 원주민 신앙인 강의 숭배(강가)와 풍요신앙(링가)을 받아들였다. 윤회. 재생사상 등이 윤리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베다의 종교는 극히 철학적인 우파니샤드의 세계로 발전하였으며, 신분을 고정시키는 카스트제도는 그 세계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되었다.
한 편 이란으로 이주한 그룹은 이주 시기를 달리하는 동쪽 루트와 코카서스 회랑을 통해 남하했던 두 개의 루트가 있었으며 각각 독자적인 사색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원래 똑같이 신이었던 다에바(디바)와 아후라의 신군(神群) 가운데 다에바 신군이 악마화 하여 저주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제사단(祭司団)에서도 주술적이고 부정적인 힘을 구사하여 두려움으로써 신자들을 이끄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와 같은 사회에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나타나 새로운 세계관을 설했던 것이다.

2.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오래전인 기원전 6~7세기 경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이란 명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종교이다. 일설에 의하면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650년 경 동 이란에서 태어나 20세에 출가하고 30세에 신의 계시를 받아 궁정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펼쳤으며 77세에 세상을 떴다고 한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의 성립을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2~13세기 경으로 보고 조로아스터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로아스터교 이전의 페르시아 종교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거의 없으며 조로아스터교에 관한 것도 자라투스트라 송가와 후대에 편집된 경전 아베스타(Avesta) 정도인데 아베스타 중에서도 조로아스터에 의해 집대성 되었다는 '가싸 아베스타'만이 믿을 수 있는 자료로써 인정받고 있다.

3.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

조로아스터교에 의하면 원래 두개의 대립하는 영이 각각 무관계로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양자가 접촉했던 때에 한 편은 선하게 되고자 하여 생과 빛을 선택하고 다른 쪽은 악과 죽음, 그리고 어둠을 선택했다.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는 이 양자의 대립과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 아후라 마즈다는 절대적 존재이고 우주를 창조했지만 우주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과 악,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인간은 선한 생각,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의 3가지를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고 선을 위해 투쟁한다.

4. 조로아스터교의 교리

조로아스터교는 한마디로 윤리적 유일신론이라 할 수 있다. 지극히 선한 존재인 아후라 마즈다는 인간에게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한다.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의 개념은 조로아스터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유대교의 종교지도자 모세처럼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신 개념에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주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도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 아후라 마즈다는 인간에게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선택 할 자유를 주었다. 선을 택하도록 권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조로아스터가 윤리적 유일신관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악의 투쟁은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가 세상의 모든 악을 제압하고 항복을 받을 날이 오리라고 믿었다. 오직 선의 힘만이 영원하며 악은 세상의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후에 '심판의 다리'에 이르게 되며 그 때에 영혼에 관한 기록이 낭독되고 선악의 무게가 저울질 된다. 그 결과 선행이 많으면 낙원행, 악행이 많으면 지옥행을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조로아스터는 인간들에게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하도록 강한 윤리적 결단을 강조했던 것이다.

5. 조로아스터가 후대에 끼친 영향

일신론을 주장하면서도 이원론적인 요소를 지닌 조로아스터교는 훗날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세계 종교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신화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이원론, 구세주 신화, 종말론, 선의 승리와 만인의 구원, 육체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등이 모두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한 개념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의 원형을 보았다. 성서와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철학적, 신학적 개념들이 고대 이란 문헌에서 발견되어 체계화된 것으로, 조로아스터교는 인류문명 초기의 원형적 이론을 제시한 종교로서 인류 정신사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겠다.

6. 조로아스터교의 신들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으로 최고 선인 아후라 마즈다는 여섯 개의 선한 의도 - 아샤(Asha:법칙), 선한 왕국, 신심(信心), 건강, 불사(不死)와 아후라 자신의 영을 포함한 일곱가지 속성을 지녔다. 아후라 마즈다는 이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자신이 창조한 우주와 소통한다.

앙그라 마이뉴(Angra Mainyu, 훗날 아흐리만Ahriman이라 불림)

아후라 마즈다에 맞서는 악령의 신. 끊임없이 진실의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 따라서 이 세상은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 간의 투쟁의 반영이며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 따르면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는 세계 종말의 때에 패배한다.

아르드비 수라 아나히타(Ardvi sura Anahita)

땅위의 모든 물의 여신이자 우주대양의 수원이 되며, 생명의 근원으로서 추앙받는 여신. 크고 강인한 신체에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미트라(Mithra)

미트라는 우주의 질서- 즉 밤과 낮, 계절의 변화를 통제했던 신으로 불, 태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란과 인도에서는 태양신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고대 동부이란어인 아베스타어로 미트라는 '행정,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와 신의를 가장 큰 특성으로 하며 악과 대적해서 싸우는 무장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타르(Atar)

아타르는 불을 뜻하며 지혜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아들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그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늘 집안에 화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불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바람의 신 바유(Vayu), 비의 신 티쉬트리야(Tishtrya), 풍요의 신 하오마(Haoma-베다의 소마Soma) 등이 있다.

<제3강> 중앙아시아 속의 헬레니즘 - 박트리아 왕국의 그리스 도시 아이하눔

1. 그리스 후기 고전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

페르시아 전쟁(B.C 490 ~ B.C479)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들 간에 끝없는 알력다툼이 이어지고 마침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두 적대국에 동맹국들이 가세하여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 ~ B.C 404)으로 비화되었다. 아테네와 그리스의 번영을 종말로 이끈 이 전쟁이 끝나고 알렉산더가 등장하기까지의 75년간을 예술사적인 면에서 후기 고전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 건축은 기존의 도리아 양식 이외에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이오니아 양식이 도입되어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러한 섬세하고 우미한 특징은 회화와 조각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B.C 4세기 최대의 미술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특징은 아름다움과 조화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 역시 고대 미술의 규칙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그의 인체 조각들은 전혀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체 표현을 이루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 조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인체를 '이상화(理想化)했다는데 있다. 프락시텔레스를 비롯한 다른 조각가들은 인체의 많은 관찰을 통해 실제 인물의 외형에서 완벽한 인체라고 그들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이념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인체를 이상적으로 미화시켰던 것이다.

그리스의 사상이나 언어, 생활양식 등을 따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레니즘은 고전기 이후에 나타나는 좀더 국제화 된 그리스 문화를 특정 짓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이후 그리스 미술은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건설한 수많은 동방의 그리스 식민지 제국들의 조형 언어로 발전해갔으며 그리스 고전기 미술 양식과 주제는 오리엔트(동방) 왕국들의 전통과 융합이 이루어졌다. 건축에서는 도리아, 이오니아 양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원주를 가진 코린트 양식이 생겨났으며 이 화려한 잎사귀 무늬로 장식된 코린트 양식의 주두는 동방의 그리스 왕국에 세워진 거대한 규모의 호화로운 건출물들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시대에 이르러 미술의 주제는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이었던 오랜 전통과의 연관성으로부터 탈피하여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의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념의 표현은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이나 '라오콘'과 같은 격렬하고 드라마틱한 구성의 작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는데 마치 그리스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받게 한다.

2. 헬레니즘이란 무엇인가?

헬레니즘(Hellenism)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하는 '헬레니스모스(Hellenismos)' 에서 유래하는 호칭으로 알렉산드로스의 등장으로부터 수 백 년에 이르는 문화시대를 가리킨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원정 도상에서 많은 거점 도시를 건설하여 연장된 영토를 연결하고 그곳에 주유군을 주둔시켜 후위의 안정을 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식민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창설인 것이다. 아시아의 헬레니즘을 크게 나누면 세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고층은 순수한 그리스 문화의 시대이다. 이 시기는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 각지에 건축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마을의 수비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겨둔 그리스인들과 그 후계자 셀레우코스가 추진했던 그리스 문화 뿌리 내리기가 아시아 내부 깊숙이 자리 잡은 시대이다. 제 2층은 그리스인들이 아시아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 문화에 토착화의 경향이 나타난 시기이며 제 3층은 아시아의 민족들이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시기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변의 아이하눔은 바로 초기 헬레니즘 시대 박트리아 왕국에 건설된 그리스인의 도시였다.

3. 중앙아시아의 헬레니즘 왕국 - 박트리아의 역사

박트리아 왕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이후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동쪽에 세운 그리스의 식민 경영 거점이었다. 수도 박트라(Bactra)의 이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마을 발흐(Balkh)에 그 잔재가 남아있다. 박트리아는 원래 아케메네스 왕조(대략 기원전 6세기~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23개 속주의 하나로 소그디아나, 간다라와 함께 매년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박트리아를 경유하여 기원전 327년 인더스강 유역에 도달하였다. 비록 단명하고 말았지만 이로써 여러 민족을 융합한 세계 제국이 건설되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제국은 그의 부장들에 의해 분할 통치 되었는데, 박트리아는 시리아에 본거지를 둔 셀레우코스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셀레우코스 왕조(기원전 312~기원전 63)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 마우리야 왕조가 셀레우코스의 동방 영토를 침략하였다. 기원전 250년경 현재의 이란 지역에는 아르사키드(Arsacid:安息) 왕조의 파르티아가 독립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도 박트리아 태수인 그리스인 디오도투스가 독립왕국을 건설했다. 서방 사료에는 박트리아 왕국이 그 후 약 1백 년 동안 번영을 누리고, 기원전 2세기 중반 북방에서 침입한 유목민족 사카에게 멸망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도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찾지 못하다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이하눔 유적이다.

4. 아이하눔 유적

일찍이 유럽과 미국, 일본의 중앙아시아 발굴에서 아이하눔 유적이 빠져 있었던 것은 그 유적지가 아프가니스탄과 옛 소련(현재의 타지키스탄)의 국경 중간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1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국왕 무함마드 자히르샤가 수렵을 즐기는 도중 아이하눔 마을의 한 농가 근처에서 석회암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상당히 파손이 심한 상태였는데 아칸서스 잎 모양으로 된 코린트식 주두였고, 다른 하나는 원주형 기단이었다. 자히르샤는 이를 카불당국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아이하눔은 쿤두즈 동북쪽 약 55km 지점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사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프랑스 조사단에 의해 정식 발굴이 시작 되었다. 아이하눔은 그리스 도시의 특색을 갖추고 있었다. 건물 대부분은 흙 속에 묻혀있었는데 유적은 아무다리야 강과 그 지류인 코크차 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삼각형의 대지 위에 있었다. 두 변이 강에 접해 있고, 남쪽에는 가파르게 깎아지른 바위산이 있으며, 동북쪽만 평야를 향해 열려 있는 그야말로 천연요새의 지형이었다. 아이하눔은 우즈베크어로 '달의 여인' 이라는 뜻으로 17세기 중반 이 지역을 지배했던 우즈베크족의 왕비 이름에서 유래한다. 아이하눔 유적의 발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78년까지 모두 15회 넘게 조사하여 유적의 전모가 거의 밝혀졌다. 그런데 1979년 12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카르말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모든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소련군이 철수한 1988년 이후로도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상황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5. 아이하눔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지와 유물들

아이하눔 유적지에서는 열주광장과 정원, 보물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궁전 시설과 열주문, 아이하눔의 창건자로 추정되는 키네아스를 모신 사당, 요철 벽장식이 있는 신전, 체육관(김나지움)과 원형극장, 그리고 무기고와 저택지 등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유적지내에서 발굴된 유물로는 보물창고에서 그리스어가 쓰여진 저장용 항아리, 터키석, 석류석, 수정 마노 외 그 지역의 광산에서 공급되는 라피스라줄리 등의 원석이 퇴적된 채 발견 되었다. 키네아스 사당에서는 도굴되어 부장품이 남아 있지 않는 석관과 벽돌관 3개, 초석 2개와 본체가 유실된 석회암 안치대가 발견되었는데 비문의 잔해에서 클레아르코스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서 베낀 격언의 일부가 남아있다.
신전에서는 제우스 신상으로 추정되는 신상의 단편이 발견되었으며, 김나지움에서는 그리스어 비문과 헤르메스 신의 상반신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는 약탈과 화재로 인해 유물은 적었지만 철촉, 동촉, 방패의 부속품, 갑옷의 단편 등이 발굴되었다.

<제4강> 헬레니즘과 불교 - 불교의 탄생과 무불상 시대의 불교문화

알렉산드로스 사후 꿈의 대제국은 후계자들 간의 오랜 전쟁 끝에 세 개의 왕조로 분단되었다. 구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은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를 주 영지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지배하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그것이다. 새로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조의 시조 셀레우코스 니카도르(재위 기원전 312~280)는 박트리아의 귀족 스피타메네스의 딸, 아파메와 결혼하여 아들 안티오코스 1세를 낳았으며 안티오코스 1세는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후계자들 간의 오랜 쟁탈전을 치루었던 셀레우코스 조는 동방에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당시 마우리아 왕조)와는 평화 협정을 맺고 사절을 파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갔다. 이와 같은 관행은 안티오코스 1세 치하(재위 기원전 280~ 261)에서도 계속되어 마우리아조의 빈두사라왕에게 대사를 파견했으며 안티오코스 치세 최후의 해인 기원전 261년에는 마우리아 조의 아쇼카 왕(Asoka:재위B.C 272~B.C 232)이 불교 전도사를 안티오코스 왕조에 파유하기도 했다. 아쇼카왕은 불법(佛法)에 의한 통치를 선언했던 호불왕(護佛王)으로 기원전 251년경부터 시정방침을 새겨 넣은 석주를 각지에 세웠는데 이와 같이 석주에 칙령을 새기는 방식은 고대 이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계기로 그리스 및 이란 문화가 인도에 유입된 결과 나타난 산물 중의 하나이다. 이로써 힌두쿠시 남녘에서는 헬레니즘문화와 이란 문화의 융합에 인도의 불교문화가 더해져 문화의 다층적 두께가 한층 심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1. 석가모니의 출현과 초기 불교사상

B.C 563년 히말라야 산기슭의 샤카왕국(지금의 네팔)에서 정반대왕의 태자로 출생한 석가모니는 본래의 이름이 고타마 싣다르타(Gautama Siddartha)이다. 석가모니(Sakyamuni)란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며 흔히 불리워지는 붓다(Buddha)라는 명칭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불평등한 계급제도의 모순에 강한 의문을 품고 왕실을 떠나 오랜 수행 끝에 성도(成道)를 이루고 설법을 통해 카스트제도에 억눌린 평민, 노예, 천민, 상공업자들과 기존의 브라만 계급에 불만을 품었던 귀족, 승려, 국왕 등을 불교에 귀의시켰다. 석가모니는 모든 삶은 번뇌이며 번뇌는 욕망에서 싹트는 것으로 욕망을 끊음으로서 번뇌를 끊고 인생고의 업(業)을 초월하여 해탈에 이른다는 사성제(四聖諦: 네가지 거룩한 길)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팔정도(八正道: 여덟가지 바른 길)사상, 그리고 인간사가 인연(因緣)의 법칙에 따른다는 연기설(緣起說)을 내세우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집착과 무명(無明)에 의한 대립항쟁을 그칠 것과 신분평등과 차별철폐를 주장하였다. 또한 우상(偶像)이나 사사음사(邪祠淫祠: 삿되고 음란한 것을 신앙함)를 행하거나 예배하는 행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오로지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아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2. 무불상시대의 여러 요인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 또한 처음부터 상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석가모니 입멸 후 약 500년간은 무불상 시대였다. 이 시기에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우상숭배를 금지했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2.석가모니는 선각자이자 위대한 스승일 뿐 종교의 대상이 아니었다.
3.이미 열반에 들어 무형의 법이 된 붓다는 어떠한 형태로도 재현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4.당시 인도의 지배계층이었던 아리아족의 전통에는 상 숭배의 관습이 없었다.

3. 무불상 시대의 불교예술

이 시기에 석가모니를 예배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석가모니의 뜻을 받들어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오로지 수행정진에만 힘썼던 출가자들과는 달리 일반 재가신도들은 어떻게든 석가모니 붓다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성물로 삼아 경배와 공양을 바침으로써 공덕을 쌓고자 했다. 그리하여 상을 안치하고 그에 예배하는 형식의 종교의식은 없었으나 석가모니의 유골(사리)을 봉안한 탑(스투파), 석가모니가 성도시에 앉았던 자리(금강좌), 석가모니의 성도시 해와 비를 막아주었던 보리수, 진리와 설법의 상징인 법륜(法輪), 석가모니의 족적(발자국), 그리고 불, 법, 승 삼보를 상징하는 삼보표(三寶表)등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 스투파(Sthupa)**

스투파란 석가모니 붓다와 그밖에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한 봉분 형태의 실제 분묘를 가리키는 명칭이며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투파의 속어 투파(thupa)를 한역한 탑파(塔婆)의 줄임 말이다. 석가모니 붓다가 열반에 들자 다비식에 참석했던 여덟 부족의 왕들이 나누어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여덟 기의 스투파를 세워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그밖에 한 개의 병탑과 한 개의 화탄탑(火炭塔)을 더해 모두 열 기의 초기 스투파가 세워졌다. 훗날 아쇼카왕은 여덟 개의 사리탑 중 일곱 개를 개착하여(그 중 한 개의 탑은 그 곳을 지키고 있던 코브라 때문에 열 수 없었다고 한다) 사리들을 분할하고 각처에 8만4천개의 스투파를 세웠다고 전해지나 오늘날 8만4천이라는 숫자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쇼카 시대의 탑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것으로 인도 중부 산치지방에 세워진 산치대탑이 있다. 스투파의 울타리는 평면도로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스와스티카(Swastica 卍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스투파의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경배하는 관습 또한 태양의 움직임을 재현한 것으로 이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의 속성을 지닌 붓다의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 석굴사원

매우 금욕적이고 탈속적이었던 초기 승가에서는 별도의 사당이나 승원을 세우지 않았다. 집회는 주로 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유행승(遊行僧)들이 우기(雨期)에 비를 피하기 위한 동굴이나 움막 등의 임시 거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 후 의식을 위한 소박한 형태의 건물이 세워졌으나 내구성이 적은 나무나 짚으로 만들어져 오늘날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서아시아로부터 석조 구조물을 만드는 전통과 기술이 전래된 이래 마우리아 왕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비로소 석굴사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인도에는 원래 석굴을 조영하기에 알맞은 암산들이 많아서 베다 이래 수도자들의 거처로 석굴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불교도들도 석굴을 성소로 만들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석굴은 재질이 영구적인데다가 우기에는 비를 잘 막아주어 수도생활에는 더없이 적합한 장소였다. 부파불교 시기(B.C 2세기~A.D 1세기)에는 주로 독거 수행자들을 위한 소규모 석굴이 만들어졌으나 차츰 승가가 확대되면서 거대한 석굴사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같은 석굴사원의 전통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 본생도(本生圖)와 불전도(佛傳圖)

인도 중부지방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불전담과 본생담을 조형물로 제작하였다. 이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와 불교 교리들을 보다 쉽게 일반대중에 전파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특히 참배객이 많이 찾는 스투파의 울타리와 탑문에 불전도와 본생도를 부조로 조각해 넣었다. 이 시기는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붓다의 형상은 성수(보리수)나 금강좌, 법륜 등의 상징물로 제시되어 있다. 불상이 표현된 불전도는 적어도 서기 1세기 이후에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석가모니의 본생담은 그 형식면에 있어서 대부분 기존에 존재해 있던 인도 고유의 우화나 민담 등에 기초하여 불교적인 이야기로 각색된 것들이다. 초기 불전도에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주로 상징물로 표현되는데 이 때 의 상징물은 기본적으로 연화, 성수, 법륜, 스투파 네 개의 도상이 모티브로 사용되어진다. 이는 '불전상의 4대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화는 탄생, 성수는 성도, 법륜은 초설법, 스투파는 열반을 상징한다. 간혹 붓다의 자리를 텅 빈 공간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5강> 헬레니즘과 불교 2 - 쿠샨족과 간다라 불상

1. 카니슈카왕과 쿠샨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왕 아쇼카의 보호와 장려에 의해 세계종교로 부상했던 불교는 그 후 약 300년간의 침체기를 거쳐 쿠샨조의 카니슈카(Kaniska)왕 대에 다시 크게 부흥하게 된다. 카니슈카왕의 선조는 기원전 2세기 경, 중국의 감숙성에 해당하는 돈황, 기련산맥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월지족(月氏族)이었는데, 당시 맹위를 떨치던 북방 유목민족 흉노에 패해 서남향으로 쫓겨 내려가게 되었으며, 기원전 130년 경, 아무다리아강 유역의 그리스 식민지 박트리아(大夏)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월지국(大月氏)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 후 100년 정도 지나, 점령지를 분할통치 했던 대월지의 다섯 부족 가운데 하나인 쿠샨(貴霜)족이 다른 부족들을 병합하여 통일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쿠샨왕조이다. 그 후 더욱 강성해진 쿠샨왕조는 제3대 카니슈카왕대에 이르러 그 영토와 세력은 동으로 중인도의 베나레스, 서쪽으로는 중국 신강성 위그루 자치구인 카슈가르와 호탄, 그리고 이란의 동북부에서 아랄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인도 북부를 점령한 쿠샨족은 인도 정통종교인 브라만교보다 후에 탄생한 불교에 보다 쉽게 경도되었으며 마우리아조의 아쇼카왕 이래로 두 번째 호불왕이라 할 수 있는 카니슈카왕의 보호아래 불교는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카니슈카왕은 아쇼카왕을 본받아 도처에 가람과 불당을 건립하고 특히 푸루샤프라(지금의 페샤와르) 교외에 승원과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대탑을 건립했는데 이를 '카니슈카 가람'이라 부른다. 이 장엄한 대가람에서는 유명한 카니슈카 사리용기가 발견되었다. 호불왕 카니슈카는 그밖에도 불교 공부와 불교사업에 심열을 기울였는데, 중인도로부터는 유명한 아슈바고샤(Asvaghosa 馬鳴)를 종교고문으로 초청하여 궁에 머물게 하고 그로부터 불교경전을 배웠으며, 파르쉬바(Parsva 脇尊者)라는 스승의 권유로 카슈미르에서 500명의 승려를 모아 삼장(三藏-涇.律.論)의 4차 결집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쿠샨왕조 시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대승불교를 적극 후원했던 카니슈카 왕의 영향에 힘입어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불상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2. 박티 사상의 대두와 붓다관의 변화

기존의 무불상 시대에 상징으로 제시되었던 붓다의 이미지가 점차 인간의 형상을 한 불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종래의 붓다관에 일어났던 커다란 변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인도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아리아족은 그들이 남긴 기도문집 '리그베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을 신격화한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나 신에게 바치는 찬가시문 등 정신적인 방면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조형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는 상 숭배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인더스문명 이래로 인도 문화의 기저에 깊숙이 잠재해 있던 원주민의 상 숭배 의식이 다시 표면으로 등장한 것은 B.C 2~3세기 무렵이었다. 신에게 열렬한 경신을 바치고자 하는 박티(bhakti)사상이 인도 종교의 전반에 대두되면서 주로 농경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착 세력, 바이샤(서민)와 수드라(노예) 계급사이에서 수확의 풍요와 현실의 복을 비는 주술과 민간신앙의 산물로서 다수의 신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불교에 있어서도 박티 사상이 대두되고 대승불교가 흥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붓다의 형상을 갖춘 예배대상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상의 출현은 개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붓다의 인간적 형상에 열렬한 신앙과 경배를 바치고자 했던 대중들의 뿌리 깊은 열망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승불교의 흥기와 불상의 탄생

기존의 무불상(無佛像) 시대에 상징으로 제시되었던 붓다의 이미지가 점차 인간의 형상을 한 불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불교가 대승불교로 변모되고 철학체계가 신앙체계로 옮겨가게 되면서 개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절대자의 힘에 의지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대중의 의식 속에 팽배해졌다. 출가자(出家者)가 아닌 일반 재가(在家)신도들은 붓다가 신화 속의 신들처럼 중생들의 모든 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구제자라고 생각했으며, 붓다의 형상을 닮은 불상 속에는 불성(佛性)이 깃들어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붓다의 형상을 갖춘 예배 대상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쿠샨족의 왕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불교도로 제2의 아쇼카라 불리웠던 카니시카왕은 특히 대승불교를 후원하였는데 사유체계가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불교의 고도로 추상적인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유목민족의 특성상 타력종교로서의 대승불교의 지지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목민족이었던 쿠샨족에게는 페르시아(고대 이란)의 영향으로 보이는 초상 조각의 전통이 있었다. 원래 이란계 유목민족에게는 왕을 신격화 하고 조상들의 영혼을 숭배하는 전통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일대의 광활한 영토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일삼아 온 그들로서는 여러 군소 토착세력들을 제압하고 다양한 민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강력한 왕권신수의 개념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신격화된 제왕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여타 민족들과의 변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절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격화된 제왕의 상을 만들어 받들던 쿠샨족의 오랜 전통이 석가족의 왕자이자 당시 전륜성왕에 비견되었던 석가모니 붓다를 상으로 만들어 추앙하고자 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탄생한 불상 숭배의 사상은 불교가 본격적으로 신앙의 체계를 갖춘 종교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불상 탄생의 요인 내적 요인-붓다에 열렬한 신앙과 경배를 바치고자 하는 박티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상 숭배 의식이 발생했으며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예배 대상으로서의 불상이 요구되었다.

외적 요인- 당시 인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유목민족 쿠샨왕조가 지닌 초상조각의 전통 불상 출현에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

*전륜성왕(轉輪聖王) : 고대 바빌로니아의 이상이자 고대인도 베다시대의 이상이기도 한 '사방을 통치하는 제왕'의 관념은 고대 인도의 문헌에서 태양의 바퀴가 이끄는 대로 세계를 통치한다는 의미로 전륜성왕이라 칭하고 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삼십이상(三十二 像)을 갖춘 대인은 전륜성왕이나 붓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전륜성왕은 세속적 붓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화폐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불상

불상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인가, 현재 확인 할 수 있는 최초의 불상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틸라 테베 고분에서 출토된 인도계 금화에 표현된 것이다. 1세기 초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금화에는 법륜을 손으로 굴리는 제우스, 혹은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카로슈티 문자로 '법륜을 굴리는 자'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그것이 붓다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인체로 표현된 세계 최초의 붓다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화의 안쪽에는 사자와 삼보표가 묘사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자' 라는 명문이 있어 붓다의 상징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간다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붓다상 역시 금화에 새겨진 것이었다. 고대 간다라는 인도 세계에서 보면 서북변경에 위치해있으며 인도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의 요충, 요컨대 인도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간다라 불상은 기년명을 가진 작품이 적어 정확한 편년을 확립하기 어렵다. 붓다상 출현에 관한 자료는 쿠샨족의 카니시카왕(재위 기원 144경~171경)발행의 화폐가 있는데 화폐 표면에 왕의 초상이 돋을새김 되고 이면에는 수호신상이 새겨져있다. 많은 것은 그리스 로마, 혹은 이란계의 신들이 표현되어있으며 극히 일부에 붓다상을 묘사한 것이 있다. 이는 붓다를 그리스 로마 혹은 이란의 신들과 동일선상에 두었던 쿠샨족의 불교에 대한 견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영박물관 소장의 카니슈카왕 금화에 묘사된 붓다상을 보면 승의를 입고 정면을 향해 서있으며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는 옷단을 쥐고 있다.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있고 머리와 신체는 원형두광과 전신 광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이미 불상의 정형화된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폐의 좌측에는 그리스 문자로 Boddo(붓다)라는 명문이 새겨져있다.

5. 불상의 양식적 전개

최초로 불상이 등장했던 곳은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이었다. 간다라는 인도아대륙의 서북 변경부에 있으며 그리스, 이란, 중앙아시아라는 이민족의 침입의 무대가 되었던 땅이었다. 한 편, 마투라는 북인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간다라와의 교류를 가지면서도 인도의 고유한 풍토를 강하게 지닌 곳이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역사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같은 쿠샨조 시대(1세기~3세기)의 불상에 있어서도 간다라불과 마투라불의 조형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된다. 쿠샨조의 간다라불과 마투라불은 그 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음의 굽타 시대(4세기 중엽~6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에게 익숙한 형상인 명상적이고 정적인 붓다의 이미지로 완성되는 것이다.

간다라불상

간다라 지역은 중앙 아시아에서 북인도에 걸쳐 대제국을 세웠던 쿠샨조 시대에는 수도가 되었던 곳이다. 고대 간다라지역은 인도의 서북 변경에 위치해 있어 인도와 이란,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로이며 인도문화와 이문화가 접촉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간다라에서는 동서교역에 의한 경제적 번영을 배경으로 많은 상인들의 시주에 의한 조사조불(造寺造佛) 활동이 행해져 엄청난 수의 편암과 천매암의 불상이 제작되었다. 특히 푸른 빛을 띈 흑회색의 편암을 사용한 불상이 많다. 초기 간다라불의 특징을 들자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얼굴형의 현실적인 표현으로, 얼굴의 윤곽은 계란형으로 기름하고, 콧날은 높이 솟아 있으며 콧수염이 묘사되어 있다. 콧수염 밑으로 작고 꽉 다문 입술은 전형적인 아리아계의 얼굴형으로 그 후 아시아의 어떤 불상보다도 인간적 사실미를 느끼게 한다. 두발은 파상의 자연스러운 형을 이루고, 정수리에서 크게 묶어 육계를 만들었다. 체구로 눈을 돌리면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싣고 왼다리를 약간 풀어주어 미소한 신체의 균형을 두고 있어, 그리스 조각의 콘트라포스토의 표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습에 있어서도 그리스 로마 미술의 수법으로 착의의 주름을 몸의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확실히 그리스로마의 신들의 옷차림으로 감싸인 붓다상이라 할 수 있다.

마투라 불상

중인도의 마투라 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경향으로 붓다상이 제작되었다.
마투라는 뉴델리 남쪽 약 150km 아무나강의 서안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에도 크리슈나 신 (인도신화의 영웅) 신앙의 중심지로 종교도시로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마투라 지역은 주로 쿠샨조 시대에서 굽타조 시대에 걸쳐서 하얀 반점이 있는 적색 사암을 소재로 한 조각 제작소의 하나로서 번영했다. 붓다의 특징으로서 정수리에 육계를 가지고 미간에는 백호를 나타내고 백호에 두광을 지니는 등 표현상의 약속은 간다라

와 마투라 쌍방이 공통되는 것이나 표현수법은 서로 다르다.
카니시카 3년 재명의 사르나트 출토의 불입상을 보면, 높이 2.9m의 거상으로 마투라에서 만들어져 불타첫 설법의 성지 사르나트(녹야원)로 옮겨진 것이다. 둥근 얼굴에는 발랄한 표정을 띄며 떡 벌어진 어깨와 가슴은 넓고 탄탄한 체구에는 힘이 넘친다.
편단우견으로 두른 대의는 얇고 투명하여 흡사 나체 같아서 늠름한 육체 표현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불상의 재료를 보면 어두운 흑회색의 편암을 사용했던 간다라 불상에 비해 중인도의 마투라 불상은 적색사암 으로 조각되어 눈으로 보기에도 생기 있는 온화함이 느껴진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간다라 불상에 반해 전대부터 내려오던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약샤()상의 전통과 당당하고 늠름한 쿠샨조 제왕상의 조형을 융합시켰다. 두부는 체발을 하고 정수리에 권패형(卷貝形)의 육계를 얹었으며 밝고 크게 뜬 눈과 고졸한 미소, 두텁고 육감적인 입술에서 전형적인 인도 본토인의 얼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굽타 불상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불상을 탄생시킨 쿠샨왕조는 카니슈카왕의 시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4세기 무렵 갠지스 강 유역의 마가다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이 등장한 굽타왕조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기원전 3세기 인도를 통일했던 마우리아 왕조 이래 인도는 오백년 만에 다시 아리아족에 의해 재통일을 이루게 되었으며 더불어 인도 고유의 정치, 문화, 예술이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 때마침 발생한 로마제국의 멸망과 그에 따른 서방과의 단절 또한 인도 대륙이 서방세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인도 고유의 전통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세기 이후 특징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간다라불과 마투라불은 상호 교섭과 영향을 주고받는 과도기를 거쳐 5~6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두 양식이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불상약식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전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불상양식이 비로소 그 절정기를 맞이하여 불교미술사상 최고의 걸작이라 할만한 굽타불상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깊은 명상에 잠긴 듯 반개한 붓다의 두 눈에는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정신성이 깃들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세속을 초월하고 불법의 세계로 다가가도록 이끄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전해져온다. 이처럼 심오한 내면의 정신성은 붓다의 전신에서 우러나는 생기 넘치는 감성적 표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성과 속, 부처와 중생, 절대와 상대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대승불교의 비 이원론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기에 완성된 조형상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미는 불상의 원형적 이상으로 여겨져 이후 아시아 각지의 불상조영에 있어서 하나의 견고한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6강> 두개의 정토 - 대승불교의 불신관과 그 조형의 세계

1. 중생구제를 위한 다불다보살(多佛多菩薩)의 출현

개인의 해탈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던 부파(部派:小乘)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신앙의 기본이 되었으나 모든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타력종교로서의 신앙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불 이외에 다양한 불보살들이 등장하게 된다. 각양각색의 원을 품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불다보살의 출현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불신관이 바로 삼신불(三身佛)의 개념이다. 삼신불은 종래의 일시일불설(一時一佛說)과는 달리 온 세상에 많은 붓다들이 두루 편재한다는 '시방세계다불출세(十方世界多佛出世)'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삼신불을 구성하는 여래로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法身佛), 전생의 수행을 통해 그 공덕으로 정각을 이룬 보신불(報身佛),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던 역사적인 붓다, 응신불(應身佛)이 포함되며 법신불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양처럼 모든 중생들을 빠짐없이 구제한다는 비로자나불이, 보신불에는 서방극락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불과 병든 중생을 구제하는 약사불이, 그리고 응신불에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화신(化身)하여 수많은 중생을 구제한 석가모니불과 석가모니로부터 장차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미래불로서의 미륵불이 각각 해당된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성이 바로 보살사상의 출현이다. 보살이란 보리살타(菩提薩陀:Bodhisatva의 음역)의 줄임말로「깨달음을 구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보살은 아직 여래의 반열에 오르지 않은 예비 여래를 뜻하여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上求菩提)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下化衆生) 임무를 띄고 있다. 원래는 붓다에 이르기 전 구도자로서의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언어로 쓰여졌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보살 이외에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관세음보살을 비롯하여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등 다양한 보살이 등장하게된다. 신장(神將) 또한 대승불교가 낳은 중요한 산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은 원래 고대 인도의 신들이었으나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수용되어 여래나 보살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그 들 자체 내에서도 계급적 차등을 두어 그 서열이 정해졌다. 본고장인 인도보다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더욱 애호 되었던 신장상은 불법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부분이 무장형(武將形)으로 묘사된다.

2. 불상의 종류

남방(南方)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중생제도를 위하여 직접 현세에 나타난 역사적 붓다(應身佛)이다.

수인(手印): 선정인(禪定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전법륜인(轉法輪印)

시무외인(施無畏印) 여원인(與願印)

전각(殿閣): 대웅전(大雄殿) 대웅보전(大雄寶殿) 영산전(靈山殿)

좌우협시(左右脇侍):아난(阿難) 가섭(迦葉) 문수보살(文殊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아미타불(阿彌陀佛) 약사여래(藥師如來)
제화갈라보살(提和羯羅菩薩, 練燈佛) 미륵보살(彌勒菩薩)

후불탱화(後佛幀畵):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삼여래탱화(三如來幀畵)

북방(北方)미륵불(彌勒佛)

원래는 석가모니의 제자로 도솔천(兜率天: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으로 석가모니도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도솔천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한다)에서 수행중인 보살. 석가모니 입멸 뒤 56억7천만년이 지난 다음세대에 사바세계(娑婆世界: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용화수 아래 내려와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가 못 다 제도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한다는 미래불이다.

전각: 용화전(龍華殿) 미륵전(彌勒殿)

좌우협시: 청광보살(淸光菩薩) 신광보살(神光菩薩)

후불탱화: 용화회상도(龍華會上圖)

서방(西方)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아미타란 '무한한 수명(無量壽)' 또는 '무한한 광명(無量光)'을 뜻하며 보살이었던 전생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48가지 願)을 세우고 오랜 수행 끝에 여래가 되어 서방 극락정토(極樂淨土)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수인(手印): 아미타여래 구품인(九品印)

전각: 극락전(極樂殿), 무량수전(無量壽殿), 아미타전(阿彌陀殿)

좌우협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후불탱화: 극락회상도(極樂會上圖) 아미타삼존탱화(阿彌陀三尊幀畵)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

동방(東方) 약사여래(藥師如來)

본명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라고 하며 보살이었던 전생에 12가지 원을 약사여래가 되었다. 병든 중생을 구제하는 구복신앙(求福信仰)적 요소가 강한 여래 손에 약함이나 약병을 들고 있다.

전각: 약사전(藥師殿), 유리전(瑠璃殿)

좌우협시: 일광보살(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후불탱화: 약사유리광회상도(藥師瑠璃光會上圖)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비로자나는산스크리트어로 'Virocana-태양'이라는 뜻으로 붓다의 지혜가 태양광처럼 우주 어디에나 두루 비치며 광대무변함을 뜻한다. 법(法)과 진리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法身佛)로서 4방위를 넘어서 우주전체를 총괄하며 석가모니는 비로자나불의 분신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화엄종의 주존불(主尊佛)이기도 하다.

수인: 지권인(智拳印)

전각: 대적광전(大寂光殿), 대광명전(大光明殿), 비로전(毘盧殿)

좌우협시: 문수보살(文殊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노사나불(盧舍那佛) 석가모니불

후불탱화: 삼신탱화(三身幀禍), 화엄탱화(華嚴幀禍)

지장보살(地藏菩薩)

석가모니 입멸 후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무불(無佛)시대에 *6도(六道)의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한다는 보살로 본래 인도 브라만교의 신이었으나 불교에 습합된 뒤 다시 중국으로 전해져 *염마시왕(閻魔十王)과 결합되어 말법(末法)시대 중생구제의 민간신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래가 되기를 거부하고 보살로 남기를 자처한 여래급 보살로 자리매김되어 명부(冥府)의 구세주로 명부전에 모셔져 10왕을 거느린다. 머리는 삭발하고 두건을 쓰기도 하며 손에는 석장과 보주를 들고 있다.

(*염마시왕:염마는리그베다 최초의 인간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곳의 신이 된 야마천이 불교에 흡수되어 지옥의 왕, 염마왕-염라대왕이 되었다. 이는 다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 도교와 습합되는 과정에서 시왕(十王)사상을 낳고 지장보살이 지옥의 주인이 되 어 수하에 시왕을 거느리고 그 중 하나가 염라대왕이 되었다. *육도: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윤회전생하게 되는 6단계의 세계로 낮은 순서대로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뉘어진다.)

전각: 명부전(冥府殿) 지장전(地藏殿) 시왕전(十王殿)

좌우협시: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 시왕(十王)

후불탱화: 지장탱화 시왕탱화

2. 보살(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현세구복(現世求福)적 소망을 이루어주므로 대중과 가장 가까이 밀착된 친근한 보살로 대중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보살이다. 자유자재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여래의 협시를 이루며 독립 신앙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지혜와 광명의 보살로 왼쪽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불을 이룬다. 정수리에 지혜의 보병(寶甁)을 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수보살(文殊菩薩)
이 보살은 석가가 죽은 후 인도에 태어나 '반야(般若)'의 도리를 선양하였다고 하며, 항상 반야 지혜의 권화(權化)처럼 표현되어 왔다. 반야경(般若經)을 결집, 편찬한 보살로도 알려져 있다.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권현(權現)으로서 보살의 자리에 있다고 하며 보현보살과 더불어 석가모니불의 협시를 이루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역시 보현보살(普賢菩薩)과 더불어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서 삼존불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보현보살이 실천적 구도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 문수는 사람들의 지혜의 좌표가 되는 보살이다.

보현보살(普賢菩薩)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여래의 협시보살로 유명한데 문수보살은 여래의 왼편에서 지혜를 관장하고 보현보살은 오른쪽에서 실천을 담당한다.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며석가모니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는다.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6개의 엄니(牙])가 난 흰 코끼리를 탄 모양, 연화대(蓮花臺)에 앉은 모양의 두 종류가 있다.

제화갈라보살(提和渴羅菩薩)
과거불로 석가모니의 전생에 수기(授記)를 준 부처이다. 연등불(練燈佛)라고도 한다. 석가모니가 과거세에 유동보살로서 보살계를 닦고 있을 때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어느날 연등불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7송이의 연꽃을 연등불에게 공양하였다. 연등불은 이를 받고는 '너는 미래세에 석가모니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내렸다고 한다. 혹은 석가모니가 연등불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미처 공양물을 준비하지 못해 스스로 진흙길에 엎드려 몸을 밟고 지나가게 하여 수기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를 연등불수기(燃燈佛授記)라 하며 이로부터 불교에서 보살(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3. 신장(神將)

원래는 고대 인도의 신들이었으나 불교에 습합되어 여래나 보살들보다 한단계 낮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주로 불법과 사찰수호의 임무를 맡고 있어 무장(武將)상으로 표현되며 대부분 사찰의 입구나 법당 입구, 불탑과 부도, 사리함등에 새겨져 있다.

범천(梵天)과 제석천(帝釋天)

브라만(Brahman:범천)과 인드라(Indra:帝釋天)는 브라만교의 근본성전인 베다와 고대 인도 철학서인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브라만교 최고의 신들로 불교에 수용된 신장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다. 범천은 베다에 등장하는 우주의 근본원리 '브라만(Brahman)'에서 유래되었으며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근본원리가 신격화되어 창조주로서의 남성신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한 편 인드라는 '리그베다' 가운데 등장하는 우뢰의 신으로 바즈라(Vajra:金剛杵)를 휘둘러 악을 물리치고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영웅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드라는 불교에서는 강력한 신들의 왕 '샤크라'로 불리워지는데 이를 한문으로 음역하면 '석제환인(釋帝桓因)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제석천(帝釋天)이라 불리운다. 범천과 제석천은 불교에 흡수된 뒤 석가모니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불삼존상(佛三尊像)이나 오존상(五尊像)에서 붓다의 좌우협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로는 사천왕(四天王)을 거느린다.

사천왕(四天王)

사천왕은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는 수미산(須彌山) 중턱에 머물며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궁(忉利天宮:도리는 33의 음사로 도리천은 三十三天으로도 불리운다)의 제석천을 섬기고 사방사주(四方四洲)를 수호하는 호방신(護方神)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인도의 문헌을 보면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에 관한 기록이 있는 바 불교의 사천왕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방위신에서 유래된 사천왕은 수미산 동서남북에서 불교세계와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 개개의 역할을 살펴보자면 지국천(持國天)은 '나라를 지키는 자'로 수미산 동쪽을, 증장천(增張天)은 '생장을 지키는 자'로 수미산 서쪽을, 광목천(廣目天)은 '범상치 않은 눈을 가진 자'로 수미산 서쪽을, 다문천(多聞天)은 '불법을 많이 듣는 자'로 수미산 북쪽을 수호한다. 사천왕의 신앙은 인도에서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으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과 조형은 크게 성행하였으며 그 역할 또한 불법수호에 그치지 않고 국토와 중생을 보호하는 호국의 임무를 포함하면서 세간에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 아래로는 팔부중(八部衆)을 거느린다.

팔부중(八部衆)

인도 고대 신화 속의 신들로 불교에 흡수되어 신장(神將)의 가장 낮은 계급을 이루고 있다. 천(天), 용(龍), 야차(夜叉), 간달파(乾闥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 마후라가(摩喉羅迦) 등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8종의 신장(神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룡(天龍)팔부중' 이라고도 부른다.

인왕(仁王)
사찰이나 불탑의 문 양쪽을 지키는 수문신장(守門神將)으로 금강역사(金剛力士)라고도 불린다. 원래는 인도에서 문을 지키던 신이었는데 불교에 흡수되어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찰문이나 불전 입구, 불상 좌우, 탑문등에 한 쌍으로 구성되며 입을 벌린 아형(阿形)과 입을 다문 음형(吟形)으로 표현된다.

명왕(明王)
인도의 토속신이 불교에 흡수된 밀교(密敎) 계통의 불상으로 대일여래(비로자나불)의 교령을 받아 모든 악의 무리를 조복시키는 임무를 받고 여래, 보살이 무서운 형태로 변신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앉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 칼과 밧줄을 손에 들고 극악무도한 무리들을 벌하여 죽게 하지만 자비로운 본래의 여래, 보살의 마음으로 다시 소생시켜 불도로 인도하는 자비행을 최종의 목적으로 하는 덕과 자비를 겸하고 있다.

나한(羅漢)
소승불교의 수행자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붓다처럼 번뇌를 끊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를 지칭한다. 16나한, 500나한, 십대제자 등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두개의 정토- 서방극락정토와 동방 유리광약사정토의 기원>

실크로드 상에서 볼 때 이란 고원의 서쪽과 이란 고원의 동쪽으로 2분하여 생각하면 편리하다. 다시 말해 이란 고원 서쪽의 헬레니즘 대지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이오니아의 석조공에 의한 석조문화이다. 그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선문, 열주도로 그 좌우에 상점가와 거주지역이 있으며 나아가 신전, 원형극장 등이 있다. 신전은 그 토지의 신과 그리스 로마의신들이 함께 모셔져있다. 즉 원주민들은 태양신 '바르'를 받들어 그곳에서 제사지내고 , 같은 신전에서 로마인들은 주피터(제우스) 신을 참배하러 가는 것과 같이, 하나의 신전에 서로 다른 민족의 신들이 모셔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훗날 그 일대가 이슬람 화 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암굴의 돔' 등이 유대교의 성지이면서 이슬람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교의 성지로도 되는 형태의 구조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서반부 세계만의 것이 아닌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에도 유입되었다. 중앙아시아에 서방으로부터 경교(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교), 마니교, 배화교,(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등이 전해졌는데 이 종교들은 서북인도에서 북상했던 불교 다시 말해 북전불교(北傳佛敎)와 습합했다. 때문에 북전불교의 사고방식에는 매우 서방적인 즉 그리스 로마, 혹은 샘족 햄족 등의 종교가 여러 형태로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에 대승불교로서 성립한 서북인도 불교의 기본 중에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서방 극락정토라고 하는 사상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사막에서 발생한 서방정토(西方淨土) 사상

이란고원에는 '타키부스탄(Taq-i-Bustan)' 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이것은「낙원의 아치」라는 의미로,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적이다. 사막과 헐벗은 암산으로 이루어진 건조지대에 댐으로 하천을 막아 용수천지의 물이 확보되면 그곳이 바로 녹음방초가 우거진 오아시스가 되는데 타키부스탄은 '낙원의 아치'라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의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용수천지 뒤의 암산을 두 개의 크고 작은 '아치(궁륭)' 모양으로 깍아 조성한 암벽 유적이다. 그 중 대동(大洞)의 아치형 감실 벽에는 세 인물이 삼존형식으로 부조되어 있으며 아치 윗부분에는 한 쌍의 날개 달린 천사상이 부조되어 있다. 그 조형적인 표현에는 바로「불설무량수경」「불설관무량수경」「불설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서방극락정토를 표현한「당마만다라」「지광만다라」등 서방 극락정토 변상도의 구체적인 조형이 바로 이란고원의 타키부스탄 대동 벽의 부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부경의 성립은 대부분 기원 전후인데, 그 전형적인 표현은 5~6세기 경 돈황 막고굴 벽화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며 이는 삼존상을 이루는 타키 부스탄의 조형 형식이 거의 50년에서 백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중국 감숙성에 있는 돈황 막고굴 벽화에서 극락정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화적으로 표현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불교의 아미타 신앙에서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보살, 세지보살이 삼존불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중앙의 아미타는 무량광 - 영원히 빛을 발하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불로불사의 불격(佛格)이다. 그리고 아미타의 양 협시 가운데 하나인 관음은 조로아스터교 혹은 이란의 모든 종교에서 출현하는 물의여신 '아나히타'에 해당하며, 세지보살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오래 신봉되어 온 미트라(태양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사상이 성립된 것은 기원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이 5~6세기에 이르러 돈황 벽화에서 원지(園池)와 누각을 가지고 그 주변에 비천(飛天)이 나는 정토의 세계, 다시 말해 부스탄(낙원)-파라다이스라는 이미지로서 조형화 된 것이리라. 따라서 이란의 타키부스탄과 불교의 극락정토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인도 중부지역인 갠지스강 유역은 굉장히 비옥한 농경시대로 거기에서는 굳이 극락이라고 하는 특수한 파라다이스를 상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에게 있어서 낙원 그 자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은 그 자체로 지옥의 이미지를 가진다. 반면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사막 한가운데 형성된 풍요로운 오아시스 도시는 틀림없이 극락의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서방극락정토」의 이미지는 사막의 한가운데 떠오르는 오아시스 도시라는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동방유리광약사정토(東方琉璃侊藥師淨土)의 기원

그렇다면「서방극락정토」의 역방향인「동방」은 어떠했나, 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물음을 실마리로 하여 탄생한 것이「동방유리광약사정토」가 아닌가 생각된다. 약사정토의 기원은 물론 약료와 향료에서 비롯된다. 오늘날의 몰카제도(향료제도) 에 있는 약초와 향료는 무역품으로서 서쪽 지중해 세계, 로마세계로 운반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중국의 중원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를 입수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약물관계에서는 남방의 몰카제도를 중심으로 한 약료 및 향료가 귀하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왜 약사정토가 유리광- '글래스의 빛'이라 불리웠는지를 이야기 하자면, 로마인들이 불어서 만드는 글래스의 기법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유리컵 종류인 배(杯) 병(甁) 기(器) 등의 유리용기가 당시로서는 굉장한 고가의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로마세계에서 동방으로 수출하는 무역품 중 하나는 포도주였다.
포도주가 중국으로 유입된 것은 전래 설화에 의하면 한대 장건의 서역원정 이후라고 한다. 그 후로 중국에는 로마세계로부터 유리용기에 담긴 포도주가 엄청나게 수입되었는데 그 포도주를 담아서 들여온 빈 용기는 다시 약료와 향료가 채워져서 운반되었다. 배는 남쪽에서 갠지스 강을 거슬러 혹은 페르시아 만으로 가고 또는 홍해를 올라갔다. 이렇게 하여 동방에 있는 훌륭한 약료 및 향료가 유리용기에 담겨져 있다는 이미지가 갠지스 강의 중류지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이로부터「동방에 유리광약사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정토관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